

'무엇이든 물어보살', 6년간 음원 무단 사용 입건

등록 2026.01.12 12:43:20 | 수정 2026.01.12 12:45:00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측이 음원을 무단 사용해 입건됐다.

KBS N은 12일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해당 사안은 제작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분쟁 사실을 인지했다"며 "KBS N은 관련 경과를 공유 받고 있고, 미스틱스토리에서 구체적인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어렵다"면서도 "향후 관계 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KBS N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는 KBS N과 미스틱스토리 대표이사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6년 간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2013) OST '가랑가랑' 중 일부 음원을 오프닝 음악으로 사용하고, 원작자 동의 없이 다른 음원과 이어 붙여 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작자 이모씨는 지난해 2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제작진은 오프닝 음악을 교체했으나, 다시보기 서비스에는 무단으로 사용한 음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